



정부, 정보통신 벤처투자자금 4,000억 조성

오는 2002년까지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을 위해 모두 4,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이 조성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02년까지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매년 1,000억원씩 총 4,000억원의 정보통신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부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연구개발자금, 기술료, 투자조합 운용수익 등으로 매년 400억원을 마련하고, 민간부단은 일반투자자, 정보통신기업, 금융기관 및 해외벤처자본 등에서 매년 6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조성된 투자재원은 매년 100-2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을 4-5개 정도 새로 결성해 활용하며, 이럴 경우 2002년까지 20여개의 투자조합이 투자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지난해 9월 LG창업투자와 함께 이미 100억원 규모의 정

보통신 투자조합 1호를 결성한 바 있다.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은 벤처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기기, SW네트워킹, 인터넷 등 정보통신 전략분야에 특화해 투자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특히 게임 등 SW 개발의 경우, 프로젝트 투자방식을 도입하고 조합결성시 해외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투자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주식 시장 상장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기업의 경영·마케팅 등 후속지원을 제공할 정보통신전문 벤처캐피탈을 올해 200억원 규모로 설립하는 한편, 대학창업지원센터 등 창업보육 사업, 벤처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 문의 : 정보통신정책실 산업지원과 박동일 사무관
TEL : 750-2364)

한국후지쯔, Jasmine을 활용한 온라인 카탈로그 시스템 개발

한국후지쯔(대표 안경수)는

멀티미디어 웹 솔루션인 Jasmine을 활용하여 대림통상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개발해 이달 5월부터 오픈했다. 대림통상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일반 고객 및 해외 바이어들이 대림통상내의 다양한 제품을 홈페이지 상에서 주문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카탈로그 시스템이다. 주방용품 및 건축자재 설비 등 종합제조, 수출업체인 대림통상은 새로이 구축된 온라인 카탈로그를 통하여 고객들이나 바이어들이 최신의 제품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의 각 대리점들은 검색뿐만 아니라 주문 처리할 수 있다.

대림통상은 여러 솔루션을 검토한 결과, 현재 다른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온라인 카탈로그의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Jasmine솔루션을 선택했다.

대림통상은 Jasmine을 활용한 온라인 카탈로그 개발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었다.

▲개발기간 단축

대림통상의 온라인 카탈로그는 DB애플리케이션 설계기간이 2주, 어플리케이션 개발기간이 1



주, 인스톨과 콘텐츠 등록 및 교육기간이 1주로 약1개월만에 구축되었다. 일반적으로 최소 4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3/4기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유지보수 비용절감

Jasmine의 간편한 데이터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Window탐색기와 같은 비주얼한 환경 하에서 일반인도 손쉽게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관리 할 수 있다. 따라서 RDB와 같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제작이나 DB 전문가가 필요치 않아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

▲ 개발 생산성 및 시스템의 Performance 향상

데이터 Query, 데이터간의 Join의 수를 대폭 줄임으로 개발 생산성과 시스템의 Performance를 향상시켰다.

▲ 화면 구성 및 로직 변경에 능동적인 대응

Jasmine Navigation기능을 활용, 기존의 개발 방식보다 개발 소스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 쉬운 Jasmine 데이터 관리 개발툴인 Jasmine Studio를

활용하여 마우스의 Drag & Drop, Click으로 비주얼한 환경 하에서 Windows탐색기의 파일처럼 Jasmine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다.

대림통상의 온라인 카탈로그는 Jasmine 클래스 구성요소인 Class-level, Multi-valued Relationship Property와 같은 다양한 Property와 C/C++코딩이 가능한 Method를 사용하여 제품의 코드, 사진, 색상, 특징, 영업 담당자명 등의 이미지 및 텍스트 데이터 관계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Jasmine Studio를 활용하여 손쉽게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수정할수 있어 유지보수 작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Jasmine은 순수 객체지향데이터베이스(OODB)이자 애플리케이션 개발툴 (Jasmine Studio)을 지닌 멀티미디어웹 솔루션으로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와 변환을 손쉽게 실행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Jasmine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환경(Jasmine Studio)을 제공하여 데이터 관리 및 수정이 용이 하며 구축 기간 단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문의 : SW사업부(3787-6077), 구창식, 김유정)

LG텔레콤, "CTI고객센터" 강화

LG텔레콤(대표 남용)은 신속하고 과학적인 고객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년여의 정비기간을 거쳐 최첨단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고객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4월 20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가입고객수가 200만을 훨씬 넘어서며 과학적인 가입자관리가 절실했던 때문으로 LG 텔레콤은 이를 위해 LG정보통신, 한길정보시스템과 공동으로 CTI용 국제 표준규격 기술을 개발 적용했다.

LG텔레콤은 이에 따라 통신시스템은 물론 각종 고객 콜처리프로그램, 고객통화 녹음시스템에 대해 실시간 통제 관리가 가능하게 됐으며 특히 상담전화를 서울 중앙과 영남, 호남 3개 고객센터



로 분산처리, 고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 국제전화요금 "가격 파괴"

별정통신사업자들의 국제전화 저가공세에 시장 잠식을 지켜보 기만 했던 최대사업자 한국통신 이 마침내 별정사업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초저가 국제전화상품을 선보이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최근 지난 5월 1일부터 3만원의 가입비만 내면 최고 65%까지 할인된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스페셜DC」상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3만원의 가입비를 낼 경우 동남아와 캐나다, 괌, 영국 등지는 일반자동통화요금의 최고 65%까지 할인받고 기타지역은 40%가 할인되는 저가상품이다.

한국통신의 이같은 요금파괴형 국제전화 할인상품은 음성재판매 방식 국제전화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통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최근

20%를 넘어섰다.

하나로통신, 45Mbps급 인터넷 국제회선 개통

하나로통신이 45Mbps급 인터넷 국제 전용회선을 확보했다.

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은 신대방동 동작종합정보센터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소재한 디지털사의 인터넷 관문간을 T3(45Mbps)급 인터넷 국제 전용회선으로 연결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하나로통신이 T3급 국제회선 확보에 나선 것은 인터넷이용층 확대와 인터넷플라자 등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량이 급증, 전송속도가 느려지는 등 국제회선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나로통신은 가입자들이 초고속 인터넷과 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 연말까지 국내 최고 수준인 155Mbps의 국제회선 확보 및 한미간 위성을 통한 45Mbps용량의 백업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로통신은 지금까지 데이콤의 T1급 인터넷 국제회선 3회선(4.5M)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LG텔레콤, 사진기자협회에 무선데이터 서비스

LG텔레콤은 일간지 사진기자들의 모임인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오강석)에 자사 「019 데이터서비스」를 현장사진 전송용으로 공식 공급하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사진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은 별도의 모뎀을 장착하지 않아도 019 이동전화와 컴퓨터를 연결해 현장에서 즉시 사진 전송을 할 수 있게 됐다.

LG텔레콤은 이와 관련, 지난 3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사진전송 시연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 27일 사진기자협회에 019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서비스 키트를 공식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이용하게 될 무선데이터서비스의 전송속도는 초당 14.4Kbps며 접속 빈도가 적고 대량 데이터송수신에 유리한 회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대정보기술베트남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합의

현대정보기술(대표 표삼수)은 베트남 중앙은행(SBV)과 총 1300만달러 규모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회사가 수주한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은 베트남이 세계은행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금융 현대화사업 중 하나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형 시스템통합 사업이다.

현대정보기술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이번 사업은 국내 시스템통합 분야의 첫 해외 진출이며 국내 전산분야 수출 사상 최대규모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텔리웨어, 美에 네트워크장비 대량 수출

국내 한 벤처기업이 네트워크의 본고장 미국에 대량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수출한다.

네트워크 전문 개발업체인 텔리웨어(대표 류만근)는 최근 미

국의 한 업체와 자사가 개발한 대칭형 디지털가입자회선(SDSL) 라우터 장비인 「코퍼웨어 220」 1차분 1000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류만근 사장은 「국산 네트워크 장비가 이처럼 대량 수출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내년까지 대략 10만대의 물량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하게 될 SDSL 라우터는 DSL 기술을 이용, 현재 전용선 이용 비용의 30%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장비다. 코퍼웨어 220은 4대의 전화포트와 4대의 초고속 인터넷 연결 포트가 제공되며 이 고속포트를 이용하면 양 방향으로 144Kbps~2.3Mbps의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연결 포트에 허브를 연결, 동시에 수십명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국내에서 시범 서비스되고 있는 비대칭 가입자회선(ADSL) 기술은 상향속도와 하향속도의 차이로 일반 가입자에게 적합한 반면 이 기술은 상향과 하향속도가 같아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기업 가입자에게 적합한 기술이며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텔리웨어측은 SDSL 라우터 가격이 현지에서 대략 6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며 내년까지 총 6000만달러 정도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기통신, 조직 개편

신세기통신(대표 정태기)은 최근 기획실을 기획홍보실로 조정하고 운용본부 산하에 엔지니어링실과 운용실을 각각 신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세기통신은 이번 조직보완이 대외홍보기능과 통화품질 향상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사적 고객만족경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콤포텍, 시스코와 SMB계약

콤포텍시스템(대표 남석우)이 시스코와 네트워크 제품에 대한 SMB(Small & Medium Size Business) 계약을 체결하고 네트



워크 일반 유통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콤텍시스템은 자사의 허브와 시스코사의 라우터 및 스위치장비를 결합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콤텍시스템은 「시스코의 제품과 콤텍의 제품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앞으로 양사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학내망 및 게임방, SOHO시장, 유통시장 고객에게 토털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콤텍은 학내망 및 게임방, 소호시장 등에 적극 대처해나가기 위해 현재 50여곳의 협력업체를 타깃시장별로 전문협력점과 일반협력점으로 구분해 공략하는 한편 연내 협력업체를 1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적인 자사의 AS망을 이용해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보수서비스 부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데이콤, 국내 최초 “지능망시스템” 국산화

데이콤(대표 박치영)은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착신과금서비스, 평생전화번호 서

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지능망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데이콤이 국산화된 「지능망시스템」은 하나로통신과 공동으로 55억원을 투자하고, 데이콤 종합연구소가 3년여에 걸친 연구를 통해 ITU-T 지능망표준에 부합토록 개발한 것이다.

이 지능망시스템은 4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용 지능망시스템으로 채택돼 운영에 들어갔고 올해 안으로 데이콤 시외, 국제전화용 지능망시스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현재 사용중인 다른 지능망시스템과도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운용체계(OS)의 전환없이도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므로 기존 장비에서도 쉽게 구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외국통신회사로부터 도입한 지능망시스템에 비해 가격이 50%나 저렴해 통신사업자들의 원가절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부가서비스 기능향상과

관련, 외국회사로부터의 기술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데이콤, 한국통신, 온세통신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지능망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릭슨, 알카텔 등 외국통신회사에 의존해왔고 지불한 도입비용만도 150억원에 달한 상태며 특히 향후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능망시스템 도입을 계획중인 이동전화사업자들 역시 도입비용만으로도 수백억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데이콤 정규석 종합연구소장은 『이번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인 IMT2000 시스템과 초고속 멀티미디어용 BISDN 지능망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